



211차 ME주말을 다녀와서(1)

김은빈(아네스), 강현철(레오)부부

✠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211차 ME주말에 참가했던 김은빈 아네스입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남편 레오가 ME주말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단단한 사랑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참된 시간을 신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던 5월의 봄날, 갑작스럽게 바뀐 남편의 태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적지를 잃은 새처럼 저는 불안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 온 남편과의 사이가 답답하고 갑갑증이 일어나며 늘 내 편 인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와중에 항상 에너지 넘치고 즐거운 나의 일상은 봄꽃의 생기가 사라지고 겨울 한파 속 얼어 굳어 있는 차가운 땅 같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말이 많은 저와 말이 없는 남편의 사이는 본론 없이 싸움으로만 치닫고 사춘기 학생이 엄마 말을 듣기 싫어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귀를 닫듯 남편은 나에게 '다가오지마.'라는 신

호를 보내며 제게서 더 멀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분노와 짜증과 서운함이 한데 섞여 '너랑은 끝이야.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라며 내 마음의 문고리를 걸어 잠글 때쯤 제 눈에 들어왔던 ME 포스터!

ME? ME! 그 전에도 사실 들어왔었고 한번 가보라고 권유도 받았었지만 나이가 더 드시고 연륜이 있는 부부만 웬지 참석할 것 같은 부담감에 피하고 있었는데 부활미사 중 "한번 가볼까? 가자고 해볼까?"라는 이끌림이 저를 세계 끌어 당겼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머뭇거리더니 양쪽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아이 둘을 부탁하고 2박3일 211차 ME 주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화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예고편을 보지 않고 전혀 줄거리를 알지 못한 채로 캄캄한 영화관을 들어가 시작되는 영화를 볼 때처럼 긴장도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조금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는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주일전례

제 1독서 말라 3,19-20L

화 답 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제 2독서 2테살 3,7-12

복 음 루카 21,5-19

연중 제 33주일 화답송 【다해】

시편 98(97), 5-6. 7-8. 9



(후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 - 러 주님이 오신다.

